

아파트 숲에 피어나는 '예술향기'

수완지구 '영무예다음 창작스튜디오' 오픈... 작가 5명 무료 입주

아파트의 단절된 공간문화 속으로 예술이 스며들었다.

광주시 광산구 수완택지지구 영무예다음 아파트의 1개 동 1층 전체가 창작·전시, 교육이 모두 가능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신해 화제다.

(주)영무건설(●) 토건(대표 박현택)은 10일 아파트 내 미술 공간인 '영무예다음 창작스튜디오'를 열고 장현우(서양화), 백준선(사군자·서예), 윤일

된다.

작가와 입주민들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지난 씨주기와 캐리커처 그리기 등의 행사를 마련하고, 1년에 2~3차례 입주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전시도 연다.

또 작가들은 미술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입주 학생들을 무료 지도해주고, 아파트 자체 미술대학도 열어 입주민들이 미술과 친숙해지는 계기를 만들



10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택지지구 영무예다음 아파트에 문을 연 '영무예다음 창작스튜디오'에서 아이들이 도자기를 빚고 있다.

/워킹기자 jrwi@kwangju.co.kr

1개棟 1층 전체 창작·전시공간으로

미술·도자기 등 주민들과 문화 소통

권(한국화), 이용철(도자기), 이지은(아동미술)씨 등 5명을 무료 입주시켰다.

다른 층에 비해 인기가 없는 아파트 1층을 광활하게 창작공간으로 만들어 '마을공동체' 형태를 갖춘 주민들의 문화 소통 공간을 만든 것이다.

입주작가들은 114㎡ 규모의 창작공간에서 3년간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, 전시회도 열게 된다.

또 주민들은 언제든지 이곳을 찾아 작가들의 창작 모습을 지켜보고, 작가들에게 그림도 배울 수 있다. 이곳은 다른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무료 개방

된다.

주민들의 반응도 뜨겁다. 최근 시작된 강좌에는 입주민 30여명이 참여했고, 작가들은 매주 4회에 걸쳐 자신의 전공 분야를 지도하고 있다. 또 창작스튜디오 안에 전기기마가 설치돼 있어, 작가들과 함께 주민들이 직접 생활도자기를 굽고 있다.

정식 개관한 이날 오전에도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이곳에서 미술 실습을 하는 등 아파트 스튜디오가 주민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

/오피니언기자 kroh@kwangju.co.kr

日南正

- 김종우



역시나 두 사람은 '평생동지'

친일인명사전 발간 두달 연기

故 신현학 前총리 등 350여명은 제외

올해 광복절에 맞춰 나을 예정이던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이 10월로 약 2개월 미뤄지고, 고(故) 신현학 전 국무총리 등 350여명이 명단에서 제외된다.

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10일 현재 편찬 작업이 진행되는 친일인명사전의 수록대상 인물 수가 4천430명 내외로 결정됐다고 밝혔다. 이는 지난해 4월 발표된 명단에 실렸던 4천776명에서 약 350명 줄어든 것이다. 연구소는 당초 지난해 8월 친일인명사전을 출간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광복절로 이를 미

뤘다가 올해 10월로 일정을 다시 늦췄다.

지난해 명단에 포함됐으나 실제 수록 대상에서 제외된 인물로는 신현학(1920~2007) 전 국무총리와 최근우(1897~1961) 전 사회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이 있다. 연구소 관계자는 전했다.

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, 김성수 전 부통령, 장면 전 국무총리, 현상윤 고려대 초대 총장, 무용가 최승희, 음악가 안익태, 흥난파 등 사회 지도층 인사 상당수는 사회적 과정에서도 친일인명사전에 그대로 수록될 예정이다. /연합뉴스

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

• (062) 227-9600
• FAX: (062) 227-9500

합병 공고

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8월 1일(전남지부신설)과 2009년 8월 8일(전남지부신설)에 전남지부신설과 본관신설이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대한 조합원총회에서 전남지부신설과 본관신설이 이루어져 재정권은 2009년 9월 12일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신고되어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공고합니다.

2009년 8월 11일
전남지부신설
주식회사 국보기획(주) ●(주)영우(주)

주